

구양수의 <육일거사전(六一居士傳)>의 수용 양상에 대한 소고(小考)

— 조선 후기에 창작된 당(堂), 헌(軒), 재(齋)에 대한 기(記)를 중심으로

강수진*

— <차 례> —

1. 서론
2. 구양수의 <육일거사전(六一居士傳)>과 왕세정의 <구우제십가(九友齋十歌)>
3. <육일거사전>의 변주를 통한 자아·개인 표상
 - 1) <육일거사전> 속의 물(物)을 통해 정체성 드러내기
 - 2) 물(物)에 대한 취(趣)를 통해 정체성 드러내기
4. 결론 : 조선 후기 도시문화와 물(物)을 통한 개인 표상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구양수의 <육일거사전(六一居士傳)>을 변용하여 창작한 집에 대한 기(記)를 대상으로 하여, 조선 후기에 자아 또는 개인을 나타내는 양상의 한 단면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구양수의 <육일거사전>은 구양수가 말년에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의 삶을 계획하며 지은 자전이다. <육일거사전>을 변용하여 집에 대한 기(記)를 쓴 경우, 자전(自傳)에 집이라는 공간성을 부여하고 그 공간에 있는 물(物)을 통해 자아 또는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였다. 본고에서는 <육일거사전>을 변용한 기를 분석하여 공간에 대한 기의 한 양상을 밝히고, 이러한 현상이 조선 후기에 나타난 이유를 살펴보았다.

구양수의 <육일거사전>을 변용하여 창작된 기는 개인과 그 소유물이 공존하는 공간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조선 후기의 도시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시 도시문화 속에서의 문인들은 글이나 그림을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통해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고동서화를 설명하거나 묘사하였는데, 이 경우 그들의 취향을 드러내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육일거사전>을 변용한 기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애호하는 물(物)을 통해 자아 또는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는 조선 후기 개인을 서술하는 방식의 한 단면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구양수(歐陽脩), 육일거사전(六一居士傳), 조선 후기, 도시문화, 자기서사, 자아, 개인

1. 서론

본고에서는 구양수의 <육일거사전(六一居士傳)>을 변용하여 이름을 붙인 집에 대한 기(記)를 대상으로 하여, 집이라는 공간을 통해 자아 또는 개인을 나타내는 양상의 한 단면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구양수의 <육일거사전>은 구양수가 말년에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의 삶을 계획하며 지은 자전으로, 육일(六一)은 구양수가 평소에 애호하는 다섯 가지 물(物)과 구양수 자신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처하는 당이나 서재의 이름은 그 공간의 특성 또는 그곳에 살고 있는 이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기(記)는 집을 짓게 된 경위와 그 공간의 특성, 그곳을 소유하고 있는 자아 혹은 개인(타인)의 가치관이나 지향점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창작되었다. 예컨대 이유원은 자신의 다실을 ‘가곡다옥(嘉谷茶屋)’이라고 명명함으로써 다실이 있는 장소와 함께 그 기능을 드러냈으며, 정약용은 형인 정약현의 서재인 ‘수오재(守吾齋)’를 통해 세파에 시달려 내[吾]를 잃었던 삶을 돌아보며 서재의 이름에 담긴 정약현의 삶의 자세에 대해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육일거

사전>을 변용하여 이름을 붙인 집에 대해 기(記)를 쓴 경우, 자전(自傳)에 집이라는 공간성을 부여하고 그 공간에 있는 물(物)을 통해 자아 또는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여타의 집에 대한 기(記)와는 차별성을 보인다. 이러한 기는 18세기 이후에 등장하는데, 본고에서는 <육일거사전>을 변용한 기를 분석하여 공간에 대한 기의 한 양상을 밝히고, 이러한 현상이 특정 시기에 나타난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구양수의 <육일거사전(六一居士傳)>과 왕세정의 <구우재십가(九友齋十歌)>

구양수의 <육일거사전>은 구양수가 사망하기 직전인 64세(1071년)에 지은 것이다. 이 글은 자호를 육일거사(六一居士)로 지은 이유와 함께 창작 당시 구양수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육일거사(六一居士)가 이전에 저산으로 유배를 갔을 때(1046년) 자호를 취옹(醉翁)이라 하였다. 나이 들어 쇠약해지고 또 병들어서 영수에 물러나 쉬려 할 때가 되어(1068년) 또 호를 육일거사(六一居士)라고 바꾸었다.

어떤 객이 이에 대해 물었다. “육일(六一)이란 무슨 뜻입니까?”

거사가 답했다. “내 집에는 장서 일만 권과 삼대 이후의 금석유문을 집록한 것 일천 권, 금(琴) 하나, 바둑판 하나, 그리고 항상 술 한 동이를 두고 있어서입니다.”

객이 다시 물었다. “이는 오일(五一)이 될 뿐인데, 어찌서 육일이라 하는 것입니까?”

거사가 답했다. “내 한 늙은이가 이 다섯 물건 사이에서 늙어가고 있으니,

이 어찌 육일이 되지 않겠소?”

객이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명성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데 호를 자주 바꾸었으니, 이는 장생이 조소한바 그림자를 두려워하면서 해 안으로 달려간 사람입니다. 저는 장차 그대가 빨리 달려서 크게 헐떡거리다가 목이 말라 죽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니, 명성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사가 말했다. “저는 명성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또한 무릇 반드시 피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름을 지어서 그런대로 내 즐거움을 드러낼 뿐입니다.”

객이 물었다. “그 즐거움이란 무엇입니까?”

거사가 말했다. “내 즐거움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야흐로 다섯 물건에서 득의하니, 태산이 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고 천둥이 기둥을 부셔도 놀라지 않습니다. 비록 동정의 들판에서 구주(九奏)가 울리고, 탁록의 들판에서 대전을 본다 하여도 그 즐겁고 흡족한 것을 죽히 비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근심이 사라질 수는 없어, 내가 그 사이에서 즐거워하지만 세상 일이 나에게 누가 되는 것은 많습니니다. 그 중 큰 것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수레와 관복, 홀, 인수(印綬)는 밖에서 내 몸을 고달프게 하고 우환과 사려는 안에서 내 마음을 괴롭혀, 내 몸으로 하여금 병들지 않았으나 이미 피곤하게 하고 마음으로 하여금 늙기도 전에 먼저 노쇠하게 하였으니, 어느 겨를에 다섯 물건과 어울리겠습니까. 비록 그러나 내가 조정에 사직을 청한 지 3년이 되었는데, 어느 날 천자께서 슬퍼하며 그것을 안타깝게 여겨 사직하는 것을 허락하시어 이 다섯 물건과 함께 시골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되어 그 숙원을 거의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는 내가 바랐던 것입니다.”

객이 다시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수레, 관복, 홀, 인수가 그 몸에 누가 되는 것은 알면서 다섯 물건이 그 마음에 누가 되는 것은 알지 못합니까?”

거사는 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것에 매이는 것은 이미 피로하고 또 근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매이는 것은 이미 편안하며 다행히 근심이 없습니다. 내가 어찌 택하지 않겠습니까?” (하략)¹⁾

1) 구양수, <육일거사전(六一居士傳)>, 『문충집(文忠集)』 권44, “六一居士初謫滁山,

이 글을 지었을 당시 구양수는 관직에서 물러나 영수에서 은거하려 하였고, 호를 취옹(醉翁)에서 육일거사(六一居士)로 바꾸었다. 육일거사의 ‘육(六)’은 다섯 물건과 구양수를, ‘일(一)’은 다섯 물건과 구양수가 일체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양수의 다섯 물건은 장서 1만 권, 금석유문 1천 장, 금(琴), 바둑판, 술로, 장서는 사대부로서 소유하고 가까이 해야 하는 바이며, 금석유문의 경우 구양수가 집에 소장한 금석유문을 정리하여 『집고록(集古錄)』을 편찬한 바 있다. 금(琴)과 바둑판은 당시 북송의 사대부들이 공통적으로 애호했던 것으로, 금은 구양수의 문집에 실려 있는 <삼금기(三琴記)>를 통해 그가 소장하고 있는 금(琴)과 그 곡조에 대한 애호를 확인할 수 있다. 술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즉, 구양수가 이 글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물건은 실제로 그가 소유하고 애호했던 것으로, 구양수는 조정에서 물러나 이와 더불어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처럼 관직에 있으면서 자신이 애호하는 물건을 배치하고 이러한 것들을 즐기면서 은거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 성행했던 원림문학에서 비롯

自號醉翁。既老而衰且病，將退休於潁水之上，則又更號六一居士。客有問曰：‘六一，何謂也？’居士曰：‘吾家藏書一萬卷，集錄三代以來金石遺文一千卷，有琴一張，有棋一局，而常置酒一壺。’客曰：‘是爲五一爾，奈何？’居士曰：‘以吾一翁，老於此五物之間，是豈不爲六一乎？’客笑曰：‘子欲逃名者乎？而屢易其號，此莊生所謂畏影而走乎日中者也。余將見子疾走大喘渴死，而名不得逃也。’居士曰：‘吾因知名之不可逃，然亦知夫不必逃也。吾爲此名，聊以志吾之樂爾。’客曰：‘其樂如何？’居士曰：‘吾之樂可勝道哉！方其得意於五物也，太山在前而不見，疾雷破柱而不驚。雖響九奏於洞庭之野，闕大戰於涿鹿之原，未足喻其樂且適也。然常患不得極，吾樂於其間者，世事之爲吾累者衆也。其大者有二焉，軒裳圭組勞吾形於外，憂患思慮勞吾心於內，使吾形不病而已悴，心未老而先衰，尙何暇於五物哉？雖然，吾自乞其身於朝者三年矣，一日天子惻然哀之，賜其骸骨，使得與此五物偕返於田廬，庶幾償其夙願焉。此吾之所以志也。’客復笑曰：‘子知軒裳圭組之累其形，而不知五物之累其心乎？’居士曰：‘不然。累於彼者已勞矣，又多憂。累於此者，既佚矣，幸無患。吾其何擇哉？’

된 것이다. 관직에 있으면서 은거하고자 하는 원림문학은 중당(中唐) 시기의 백거이가 개척한 것에서 비롯되었는데,²⁾ 그는 <지상편(池上篇)>을 통해 자신이 앞으로 은거할 공간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낸 바 있다. 백거이는 ‘집은 10묘, 정원은 5묘이며, 물은 연못 하나, 대나무는 천 줄기라 네[十畝之宅, 五畝之園, 有水一池, 有竹千竿.]’와 같이 집과 정원의 규모, 그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려내었으며, 이 외에도 자신의 집 안에 있는 물(物)로 책, 술, 새, 거북이, 기암괴석 등을 들었다. 이에 비해 구양수는 자신이 앞으로 거처할 공간의 규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않았으며, 그 공간 속에서 소유하고자 하는 물건을 다섯 가지만 제시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완물상지(玩物喪志)를 지양하고, 애호하는 물(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했던 북송의 문인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관직에서 물러나 다섯 물건과 함께 간소하게 살고자 하는 그의 계획은 속세에서의 누(累)를 끊기 위해 은거했으나 또 다시 물(物)의 누에 얽매이게 될 수도 있다는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 구양수는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속세에서의 누와 다섯 물(物)에서 비롯되는 누를 다르게 규정한다. 즉, 관직생활에서 비롯되는 누는 자신을 피로하게 하지만, 다섯 물건에서 비롯되는 누는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소식(蘇軾)의 <서육일거사전후(書六一居士傳後)>(『東坡全集』 권93)는 이러한 구양수의 논리를 뒷받침 해준다. 소식은 구양수에게 다섯 물(物)에서 비롯되는 누(累)가 문제가 되지 않는 점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는 구양수는 소유욕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섯 물(物)의 소유 여부는 그에게 큰 의미가 없으므로 물에 얽매일 일이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구양수의 호인 ‘육일(六一)’과 같이 구양수가 다섯

2) 장과 저, 백승도 역, 『장과 교수의 중국미학사』, 푸른숲, 2012, 514~548쪽 참조.

물건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 여섯이 하나가 되었으므로, 이 경우 소유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누 또한 사라진다는 것이다. 소식의 <보회당기(寶繪堂記)>(『東坡全集』 권36)에도 이러한 관점이 들어가 있는데, 사물에 뜻을 의탁하면 사물의 특성이 자아에 영향을 주지 않아 자아를 지키며 이를 즐길 수 있으나, 사물에 뜻을 두면 사물에 지배되어 자아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³⁾ 이는 곧 사물을 소유하되 그것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자아를 지킨다는 것으로,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구양수의 ‘육일’ 또한 다섯 사물과 자아를 대등하게 위치하게 하여 그 사물에서 비롯되는 즐거움을 즐기되 그것에 지나치게 빠져들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구양수는 <육일거사전>을 통해 자신이 지향하는 삶에 대해 자신이 애호하는 사물과 함께 하되, 이러한 것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은거생활을 하겠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는 현재의 자아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창작된 것으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육일거사전>이 집의 이름과 그에 대한 기문으로 변주가 된 것이다. 집에 어떠한 이름을 부여할 때는 그 공간의 현재 모습이나 기능, 또는 그 공간을 사용하는 이의 삶의 지향점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즉, 집의 이름은 현재와 비교적 가까운 미래를 기준으로 지어진다는 것인데, 이는 곧 <육일거사전>에서의 시점과 일치한다. 따라서 자전인 <육일거사전>은 집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러한 집의 이름을 짓게 된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 기(記)로 변주가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명대(明代)로 와서 왕세정은 <육일거사전>을 변용하여 집의 이름을 ‘구우재(九友齋)’라 하고, <구우재십가(九友齋十歌)>를 지었다. 그 서문은 다음과 같다.

3) 장과 저(2012), 위의 책, 634~643쪽 참조.

집을 무엇 때문에 구우(九友)라 이름한 것인가. 산, 강은 재실의 외물이요, 옛 법서(法書), 옛 석각(石刻), 옛 법적(法籍), 옛 명화, 두 개의 불교 경전, 옛 술잔과 술 국자, 그리고 나의 시문을 합하면 일곱인데, 이는 모두 집 안에 있는 물(物)이다. 이 아홉 가지 중 8개는 나와 더불어 노니는 것이요, 나머지는 내가 짓고 쓴 것이므로 아홉 벗이라 한 것이다. 아홉 벗 중에는 일찍 얻은 것도 있고 늦게 얻은 것도 있는데, 또한 나를 따라서 노니는 것도 있으며 함께 남겨두고서 따라다니지 못하는 것들도 있다. 나를 따라다니지 못하는 것은 날이 갈수록 생각이 나고, 가지고 왔던 것 또한 싫증이 나면 집에 돌아가고 싶어진다. 가을날 산진(山鎭)에서 하는 일이 없어 매양 한 번씩 그들[九友]이 생각날 때면 순채국과 농어회를 먹고 싶은 마음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에 십가(十歌)를 지으니, 십가를 짓게 된 까닭은 나 자신까지 합하면 열이기 때문이니, 이 또한 구양거사(구양수)가 육일(六一)이라 했던 뜻을 본받은 것이다.⁴⁾

왕세정은 구양수의 <육일거사전>을 변용하여 집의 이름을 지음으로써 자전에 서재라는 공간성을 부여하여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구체화하였다. 왕세정은 자신이 애호하는 물로 9가지를 꼽았는데, 이는 집 주변의 환경인 산과 강, 그리고 서재를 구성하고 있는 법서, 석각, 법적, 명화, 불교 경전, 술잔과 국자, 자신이 쓴 시문이다. 왕세정은 자신까지 합하면 열이 되어 십가(十歌)를 지었다고 했는데, 이는 구양수의 육일과 같이 자신과 물을 동등한 위치에 놓은 것이다.

왕세정의 구우재(九友齋)는 구양수의 육일(六一)이라는 물(物)과 자아

4) 왕세정, <구우재십가(九友齋十歌)>, 『염주사부고(兪州四部稿)』 권22, “齋何以名九友也? 曰山, 曰水, 齋以外物也, 曰古法書, 曰古石刻, 曰古法籍, 曰古名畫, 曰二藏經, 曰古杯勺, 併余詩文而七, 則皆齋以內物也. 是九物者, 其八與余周旋, 而一余所撰著, 故曰九友也. 九友得之有早晚, 亦有從余而游, 與留而不能從者. 其不能從者, 既日思御, 而從者亦倦, 而思歸矣. 秋日山鎭無事, 每一及之, 不勝蓴鱸之感, 乃成十歌, 所以有十歌者, 併余身而十, 亦歐陽居士六一意也.”

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식에서 비롯되었지만, 물(物)을 소유하는 방식은 구양수와는 다르다. 구양수는 물(物)의 소유에서 비롯되는 누(累)를 부정하지 않으며, 물(物)과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 놓아 소유와 피소유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써 누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왕세정은 물(物)과 자신의 관계를 우(友)로 규정지음으로써 누에서 벗어나는 방식을 취하였다. 물(物)을 우(友)로 놓게 되면, 자신과 물(物)은 일방향이 관계가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관계로 바뀌게 된다. 왕세정은 ‘從’과 ‘遊’를 써서 이러한 관계를 표현하였는데, 이 경우 소유와 피소유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자연히 물(物)에서 오는 누 또한 극복하게 되는 것이다. 즉 왕세정은 물(物)에 우(友)라는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물과 자신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했으며,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구우재로 설정한 것이다.

이러한 물(物)을 대하는 태도는 북송과 명말(明末)의 도시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송 때 도시문화를 바탕으로 한 원림문화는 물(物)을 소유하되 완물상지(玩物喪志)를 지양함으로써 사(士)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명대(明代)의 왕양명 이후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는 이론과 강남에서 비롯된 도시문화가 결합하면서 물(物)을 소유함에 있어 자아와 물(物)의 거리를 고민하기보다는 물(物)에 대한 애호를 있는 그대로 나타내게 되었고, 이는 문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5) 따라서 왕세정의 구우재는 구양수의 <육일거사전>에서 물(物)과의 관계를 통한 개인의 표현이라는 모티프를 가져와서 자신이 애호하는 물(物)을 모두 나열하고, 이를 통해 자아의 정체성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당대의 가치관에 따라 물(物)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게 나타난 것

5) 장파 저(2012), 위의 책, 682~697쪽과 배현진, 「명말 도시문화 변화와 서화수장 취미 전개 양상」, 『동양예술』 28, 2015, 127~152쪽 참조.

으로, 조선 후기에 <육일거사전>을 변용한 기(記) 또한 물(物)에 대한 접근 방식에 따라 구양수의 <육일거사전>과 왕세정의 <구우재십가>의 두 양상으로 나타난다.

3. <육일거사전>의 변주를 통한 자아·개인 표상

: 物을 통해 자아·개인의 정체성 표현

<육일거사전>을 변용하여 집에 대한 기를 쓴 것은 18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에 해당하는 작품의 수는 약 5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집에 대한 기(記)에서 집의 이름에 ‘우(友)’가 붙거나 ‘〇一’로 이름을 지은 대부분의 경우, ‘우(友)’나 ‘〇一’에서 ‘〇’에 해당하는 것은 주로 실제 소유하고 있는 사물이 아닌 집 주변의 자연물이나 관념적인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허균의 경우 <사우재기(四友齋記)>(『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 권6)를 지어 자신이 지향하는 삶을 나타낸 바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네 벗[四友]은 도잠(陶潛), 이백(李白), 소식(蘇軾)과 허균 자신으로, 허균은 이 기(記)에서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물(物)을 통해 자아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상우천고(尙友千古)를 통해 당시 불우했던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나타낸 것이다.

<육일거사전>을 변용한 기에서 집의 이름을 지은 방식은 육일(六一)을 활용하여 지은 경우와 자신이 애호하는 물(物)을 우(友)로 표현하여 지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六一’을 활용한 경우에는 좋아하는 물과 작가 자신을 합한 숫자를 붙여서 ‘三一’, ‘四一’과 같은 식으로, ‘友’의 경우에는 ‘九友’, ‘十友’ 등과 같은 식으로 물(物)의 숫자나 물과 자신을 포함한 숫자를 넣어서 집의 이름을 지었다. 이는 단순히 작명 방식의 차이에서 그

치지 않는다. ‘〇—’의 형식으로 집의 이름을 지은 경우에는 구양수의 자전에서 제시한 물건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구양수가 지향했던 방식으로 물(物)과 자아 혹은 소유주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友’를 집어넣은 집의 이름의 경우에는 왕세정과 마찬가지로 물건을 우(友)로 정의하여 구양수와는 다른 지점으로 물과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구성하는 물건에는 개인의 취향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1) <육일거사전> 속의 물(物)을 통해 정체성 드러내기

물(物)이 사람에게 재미가 있게 되는 것은 반드시 그것에 재미가 있기 때문이다. 재미가 있어서 아주 좋아하는 데 이르게 되면 사람에게 누가 되는 것 또한 분명할 것이다. 내가 <육일거사전(六一居士自傳)>을 읽으면서 거사가 다만 수레, 관복, 흙, 갓끈이 누가 되는 것은 알면서도 다섯 물(物)이 누가 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항상 이상하게 생각했으니, 어찌 다섯 물(物)이 과연 누가 될 수 없단 말인가. 수레, 관복, 흙, 갓끈이 거사에게 누가 되는 것이 진실로 다섯 물(物)보다 심했을 것이니, 그 재미를 느끼는 것도 반드시 다섯 물(物)보다 심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거사가 물러나 다섯 물(物)과 함께 거한 것은 딱 맞는 것을 취한 것이요, 그것이 누가 되는 것은 스스로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관직에 나아가면 수레, 관복, 흙, 갓끈이 자신의 몸을 피곤하게 하고 자신의 마음을 수고롭게 함을 이미 깨달았을 것이다. 이윤과 태공의 경우 밭 갈고 낚시하던 처지에서 아형(阿衡)과 상보(尙父)가 되기에 이르렀지만, 시종 조금도 그 마음에 누가 되는 것이 없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천하의 만물에 있어서 그 재미가 있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록 그러나 바야흐로 물(物)에 재미를 느끼면서도 이미 그것이 누가 되는 것을 알았으니, 거사가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것 또한 빼어나다 할 것이다.

나는 세상에 아직 쓰이지 못했으며, 내가 좋아하는 물(物)이 다섯 물(物) 사이를 넘지 않은 것은 오히려 그것이 누가 될까 걱정해서였다. 하물며 그

수레, 관복, 홀, 갓끈이 나에게 누가 되는 것이 다섯 물(物)보다 심하지 않다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지금 그 누가 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함에 그 기욕(嗜慾)을 줄이는 것 만한 것이 없으므로, 육일거사(六一居士)의 다섯 물건 중에서 금(琴)을 버리고, 또 바둑판을 버리고 고금의 주전문(籀篆文)을 버려, 오직 책 일천 권을 두고 술 한 동이를 두어 나 한 사람과 섞여서 삼일(三一)이 되니, 이는 내 집을 이름 지은 까닭이다.

혹자가 물었다. “물(物)은 많고 적은 것과 관계없이 누가 되는 것은 같습니다. 그대는 책과 술이 그대를 얽매이지 않을 것을 어떻게 알고 버리지 않는 것입니까?” 나는 답했다. “네. 그러나 내가 단지 저 두 가지 물(物)만을 취한 것은, 그것이 만약 나에게 누가 된다 하더라도 또한 때때로 내 누를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야흐로 술이 내 입술을 적시면 소소하게 그 좋은 맛을 맛보고, 책이 내 마음을 혹되게 하면 부지런히 그 좋은 뜻을 탐구한다면, 그 누가 되는 것이 어찌 아름다운 소리와 화려한 여색과 다르겠습니까. 이윽고 한 잔 술을 마시고 한 번 시를 읊조리면 흥이 겨워 즐겁고 석연해져 좋습니다. 지난날 재미가 있던 것이 마침내 재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매우 흡족한 것에 이르게 됩니다. 쾌하고 격앙되어 내 정신이 왕성해지고 내 기운이 채워져서 모든 천하의 만물이 죽히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없으니, 이것이 또 두 물(物)이 내 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누가 되는 것은 미미하고 잠시이지만 그 누를 버리는 것은 크고 오래 가니, 어찌 그것을 버리겠습니까. 비록 그러나 다만 책만 보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고루해지는 것으로 치우치거나, 다만 술만 마시고 책은 보지 않으면 방탕한 데에 점점 빠지게 될 것이니, 반드시 두 개의 물(物)이 서로 어울려야만 내 즐거움이 완전해질 것입니다.”⁶⁾

6) 남유용, <삼일당기(三一堂記)>, 『뇌연집(雷淵集)』 권14, “物之爲人所嗜者, 必其有滋味者也. 有滋味而至於嗜, 則累於人也, 亦審矣. 余讀六一居士自傳, 常怪居士徒知軒裳珪組之累, 而不知五物之爲累. 豈五物果不能爲累歟? 軒裳珪組之累居士者, 固甚於五物, 則其滋味之入, 必有甚於五物者. 故居士退而與五物居, 則取以爲適, 不自知其爲累. 而進而軒裳珪組焉, 則已覺其疲吾形而勞吾心矣. 若伊尹·太公自耕釣以至爲阿衡·尙父, 而終始不以一毫累其心, 無他, 其於天下萬物

위는 남유용의 <삼일당기(三一堂記)>로, 그가 출사하기 전에 쓴 것이다. 남유용은 물(物)의 소유에서 오는 누(累)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양수가 제시한 다섯 가지 물건에서 두 가지를 택하여 집의 이름을 ‘삼일(三一)’이라 명명하였다. 또한 남유용은 구양수가 다섯 물(物)과 하나가 되었다고 하여 그 누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보지 않았으며, 물(物)에서 느끼는 누와 속세에서 느끼는 누의 차이점을 ‘재미’라는 개념을 통해 구별하였다. 즉,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에 대한 누를 재미라고 정의하고, 이는 속세나 관직에 대한 누와 다르기 때문에 구양수가 다섯 물건에 진력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애호하는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누를 재미로 바꾼다고 하여도 물(物)을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문제, 즉 재미에 얽매어서 물(物)에 지나치게 빠질 수도 있다는 누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유용은 자신의 집을 구성하는 물(物)을 책과 술 두 가지로 줄인다. 구양수의 다섯 가지 물(物)은 은퇴 후의 여가를 즐길 목적으로 선택된 것이라면, 남유용이 선택한 책과 술은 출사 전의 그에게 필요한 최소의 물(物)이었던 것이다. 이때 책은 자신의 본분인 학업을 나타내는 것이고 술은 여가를 즐기는 삶을 나타내는데, 책만 선택할 경우에 학업에만

不見其有滋味故耳。雖然方其有滋味也，而已知其爲累，居士之賢於人亦遠矣。余未試於世，凡物之爲吾嗜者，不越乎五物之間，而猶思其爲累，況其軒裳珪組而爲吾累者，安知其不甚於五物也！今欲稍損其累，莫若簡其所嗜欲，就五物而去琴，又去棋，去古今籀篆之文，獨藏書一千卷，寘酒一壺，而與吾一人，參而爲三一，此吾齋之所以名也。或曰：‘物無衆寡而爲累則一。子安知書與酒之不累子，而不去之乎？’余曰：‘唯唯。然吾之獨取夫二物者，以其雖爲吾累，而亦有時而去吾累耳。方酒之沾吾唇，而嘽嘽然味其旨，書之蠱吾心，而孳孳焉味其腴，其爲累，何以異於曼聲姘色哉！既而一觴一咏，陶然以樂，犁然而喜也。向之有味者，終歸於無味，而至其甚適也。舒暢發越，神王而氣充，舉天下萬物，無足以入吾心者，茲又非二物之去吾累者歟！其爲累也微而暫，其去累也大而久，惡乎其去之？雖然徒書也而不可以酒，則偏乎枯，徒酒也而不可以書，則漸乎蕩，必也二物相須，而吾之樂全矣。’”

지나치게 몰두하여 고루해질 수 있으며, 술만 선택할 경우에는 사(士)로서의 본분에서 벗어나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된다. 따라서 그는 책과 술을 택하여 학업과 여가 사이에서 균형을 지키며 소박하게 살고자 하는, 자신이 지향하는 바를 집 이름으로 삼고 이 기를 지은 것이다. 이때 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물(物)은 책과 술로, 그는 출사 전이라는 자신의 상황에 걸맞은 두 가지 물건을 택하여 집의 이름을 짓고, 이에 대한 기(記)를 창작하여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작품은 집에 대한 기이자 동시에 자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송(宋)의 구양수 집에는 장서 일만 권, 금석유문 일천 권, 금(琴) 하나, 술한 동이, 바둑판 하나가 있어 구양수 자신과 더불어 여섯이 되어, 자호를 육일(六一)이라 하였다. 뒤에 칠백 여년이 지나 연안(延安) 이사구(李士久)가 금(琴), 술, 바둑판을 각각 하나씩 두고, 자신과 더불어 넷이 된다 하여 자호를 사일(四一)이라 하였다. 두 사람이 거리가 크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루아침에 그 칭호를 높여 구양수와 나란히 하니 세상의 논자들 중에 누가 이사구를 어리석다 여기지 않겠는가. (중략)

대개 나는 일찍이 구양수가 스스로 전을 지은 것을 읽고 그의 뜻을 안타까워하였다. 그 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략) 일찍이 이 다섯 물건 사이에서 크게 노닐지 못했으므로, ‘장차[將]’라고 한 것이고 ‘아마도[庶幾]’라고 한 것이다. ‘장차’와 ‘아마도’는 모두 아직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사구의 경우, 세 가지 물(物)에 있어서 아직 그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한 사람이다.

이사구의 집은 가난하여 책을 모으거나 유문을 쌓아둘 수 없었다. 그러나 천성이 자유로운 것을 좋아하여, 매번 달이 밝을 때면 금(琴)을 가져다 스스로 타는데, 유수(流水)·고산(高山)의 곡조를 연주했다. 객이 이르면 혹 바둑을 한두 판 두는 것에 취미를 붙이고,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여 젊었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루도 술을 마셔서 취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무릇 밖으로는 수레, 관복, 홀, 갓끈을 사모하는 바가 없고 안으로는 사려하는 바가 없어서, 세 가지 물(物)을 온전하게 하여 그 안에서 즐길 수 있었으니, 구양수와 비교해 볼 때 어떠한가. 옛말에 이르기를, ‘용의 고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로 돼지고기를 먹은 것만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지금 명예와 지위, 문장으로 논하자면 이사구는 진실로 구양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매우 심하지만, 세 가지 물(物)로 자신의 천성을 지켜 몸을 완전하게 하고 마음을 전일하게 하여 누를 끊어버리고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 (하략)⁷⁾

위는 유한준의 <사일재기(四一齋記)>로, 이영원(李永源)을 위해 지어준 것이다. 이영원은 구양수의 다섯 물(物) 중에서 금(琴), 바둑, 술을 택하여 자호를 사일(四一)이라 하고, 서재의 이름 또한 사일재(四一齋)라 지었다. 이는 앞서서 제시했던 남유용의 삼일당(三一堂)과는 차이점이 보이는데, 남유용은 책과 술을 택하여 출사 전의 사(士)의 모습을 나타낸 반면, 이영원은 금(琴), 바둑판, 술을 택함으로써 세속의 가치 즉, 관직에는 뜻을 두지 않고 은거하며 자유롭게 노니는 삶을 나타냈다. 유한준은 구양수와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이러한 이영원의 삶을 조명하였다. 이영원은

7) 유한준, <사일재기(四一齋記)>, 『자저(自著)』 권18, “宋歐陽修家藏書一萬卷, 金石遺文一千卷, 琴一張, 酒一壺, 碁一局, 與己爲六, 自號六一. 後七百有餘年, 而延安李士久置琴酒碁各一, 與己爲四, 自號四一. 二人者相去之絕, 辨不待知者, 而一朝高其稱以與修班, 世之論者, 孰不愚士久哉! (중략) 蓋余嘗讀修所自爲傳, 而悲其志也. (중략) 未嘗不太息於此五物者, 故曰將, 故曰庶幾. 將也庶幾也, 皆未然之辭也. 而乃若士久之於三物也, 非未然, 已然之人也. 士久家貧, 不能貯書蓄遺文. 然天性喜自放, 每月明, 援琴自彈, 彈流水高山之操. 而客至則或圍碁一二局, 以寓其趣, 好飲酒, 從少至老, 無一日不飲酒以醉. 夫外無軒裳圭組之慕, 而內空於思慮, 得以全三物樂於其中, 視修爲何如哉? 語有之, ‘談龍肉, 不如食豬肉真’, 今以名位文章論, 士久固不及修遠甚, 而三物守吾天, 形完而心專, 累絕而願償.”

문장, 지위, 명예에 있어서 구양수에 미치지지는 못하지만, 그가 바라는 삶 즉, 평소에 좋아하던 것을 평생 즐기며 살아갔다는 점에서 구양수보다 뛰어나다는 것이다.

위 작품은 유한준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타인인 이영원의 정체성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남유용의 <삼일당기>와는 차이점을 보인다. 그러나 이영원이 구양수의 <육일거사전>에서 세 가지 물(物)을 선택하여 집의 이름을 지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으며, 유한준은 이러한 의도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기(記)를 지은 것이다. 따라서 물(物)을 통해 한 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삼일당기>와 유사하다 할 수 있다.

이 작품에 나타난 유한준의 누(累)에 대한 관점은 구양수와 다르다. 구양수는 지위, 명예를 갈구하는 것과 자신이 소유하는 물건에 얽매이는 것 모두를 누로 정의했다. 따라서 은거하며 살아도 소유물에서 비롯되는 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며, 이러한 누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최소의 물(物)을 곁에 두고 물(物)과 자아를 동등한 위치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유한준은 이영원이 택한 세 가지 물(物)에서 비롯되는 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는 이영원과 구양수의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영원은 위의 내용에 따르자면, 평생 관직에 뜻을 두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을 하며 삶을 즐기면서 살았던 인물이다. 따라서 외부 즉, 속세에서 오는 누는 그에게 존재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삶에서 소유할 수 있는 최소의 물건을 택하여 이를 즐기며 살았기 때문에 물(物)에 끌려가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이영원이 선택한 술, 금(琴), 바둑판에서 드러나는데, 이 세 가지 물(物)은 평생 은일을 추구했던 그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위의 두 편의 글은 구양수의 <육일거사전>에서 나오는 다섯 물(物) 중

에서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그리고 지향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물(物)을 선택하여 집의 이름을 지어 그 내면을 드러낸 것에 대한 기(記)이다. 이때 집은 그 주인의 내면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가 선택한 物은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 두 편의 글에서 집의 주인은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최소의 물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도시문화 속에서 물(物)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나타낸 것이다. 조선 후기에 도시 문화가 발달하면서 당시 문인들은 고동서화(古董書畫), 화훼 등, 자신의 취향에 맞는 물(物)을 수집하고 이에 대해 품평을 했으며, 또 이러한 물을 소재로 시문(詩文)을 창작하였다. 그러나 남유용과 이영원은 이러한 도시 문화 속에서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소의 물(物)만을 선택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냈는데, 이는 곧 구양수의 <육일거사전>에서 나타나는 물(物)과 자아의 관계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2) 물(物)에 대한 취(趣)를 통해 정체성 드러내기

세상에 삼우(三友)의 이로움이 없는데 하물며 십우(十友)는 어떻겠는가. 철영서, 수경편, 동기창(董其昌)의 필법, 정종검, 초당시, 심주(沈周)의 그림, 평우조, 녹의주, 화경집, 금신결은 곧 나의 십우(十友)이다. 모두 가까이 한 지 오래되고 특별히 애호한 것이 스스로 깊었다. 심신이 이르는 곳마다 내키는 대로 회포를 논했다. 적막한 집에 여러 친구들이 가득 앉아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철영대사라는 벗이다. 천산만수(千山萬水)를 지팡이 하나로 역력히 다녔다. 두 번째는 수경도인으로, 사람의 회복을 물에 비친 듯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동기창의 필법이다. 붓을 휘둘러 줄줄 쓴 것은 손에서 비롯된 정신이다. 네 번째는 갑 속에서 용 울음소리를 내는 칼이다. 그 광채가 번쩍번쩍하여 차고 있으면 사악한 마음이 사라진다. 다섯 번째는 화계노인이다. 동정호에서 으뜸을 다투는 시 중의 성인이다. 여섯 번째는 성은 심(沈)이요, 이름은 주(周)인 벗이다. 풍운의 조화가 그림 속의 강산에 나타난다. 일곱

번째는 성은 왕이요, 이름은 표인 친구이다. 여덟 번째는 풍미가 있는 국생(麴生)이다. 내 마음의 답답함을 쓸어버리는 하늘이 내려 준 미록(美祿)이다. 아홉 번째는 반안인(潘安仁)이다. 꽃과 나무를 심는 것을 10년의 계획으로 하였다. 열 번째는 회남왕(劉安)이다. 보리밭에서 연단을 하여 학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아! 세상에 이른바 금란지교라 하는 것은 면식이 아니면 권세로 이를 뿐이다. 뒤집으면 구름이 되고 옆으면 비가 되며 앞에서는 절을 하고 뒤에서는 관계를 끊어버린다. 내 벗들은 오랫동안 나와 지내 왔는데, 이 늙은이는 남남산 정천당에 살며 앞에서 부르면 뒤에서 답하여 가는 곳마다 서로 따른다. 주인옹의 나이 15세 때에 미호(溪湖) 김원행(金元行) 선생의 문하에서 배웠다. 학문에 뜻을 둔 지 수년이 지나 서쪽으로 구월산과 패수의 누각으로 근행(覲行)을 갔는데, 성색이 화려하여 호담암(胡澹菴)이 평생을 그르친 시에 거의 가까워질 뻔했다. 일생을 배회하여 비록 청탁(淸濁)에서 잃은 바는 없으나 끝내 도움이 되는 삼우(三友)를 만나지 못했다. 지금 이후로는 교유하는 것을 끊고 십우(十友)와 벗이 되고자 한다. 영숙(구양수)의 여섯에서 넷을 더한 것이요, 문방사우에서 여섯을 더한 것이니, 나는 외롭지 않고 반드시 벗이 있을 것이다.⁸⁾

- 8) 서직수, <십우헌기(十友軒記)>, 『십우헌집초(十友軒集抄)』, “世無三友之益, 況十友乎. 澈滢書·水鏡篇·董法筆·正宗劔·草堂詩·石田畫·平羽調·緣蟻酒·花鏡集·錦身訣, 卽吾之十友也. 皆躬親經歷, 癖好自深, 心神到處, 隨意論懷. 蕭然一室, 諸朋滿座, 其一曰澈滢大師友也, 千山萬水, 歷歷一節. 二曰水鏡道人友也, 人之禍福, 照水可鑑. 三曰董生筆法友也, 揮灑淋漓, 五峰精神. 四曰匣中吟龍友也, 其光耿耿, 佩無邪心. 五曰花溪老人友也, 洞庭爭雄, 詩中聖人. 六曰姓沈名周友也, 風雲造化, 觀畫江山. 七曰王姓豹名友也, 黃鐘一動, 萬物皆春. 八曰麴生風味友也, 澆我礪磊, 天之美祿. 九曰潘氏安仁友也, 栽花種樹, 十年之計. 十曰淮南王老友也, 麥場鍊丹, 騎鶴上天. 噫! 世所謂許以金蘭者, 非面則勢耳. 翻雲覆雨, 前揖後關. 吾友則長伴, 此翁於納納山定泉堂, 前呼後應, 面面相隨. 主人翁年昔十五, 負笈于溪湖金先生之門. 志于學數年, 覲行于西九月之山·泚水之樓, 聲色粉華, 幾乎近於胡澹菴謾平生之詩. 徘徊一世, 雖清濁之無所失, 而終未得益者三矣. 今而後息交絕遊, 托契于十友. 永叔之六加四文, 房之四添六, 吾不孤必有隣.”

위는 서직수의 <십우헌기(十友軒記)>로, 서직수는 이와 함께 <십우헌고시(十友軒古詩)>를 짓고 이인문에게 <십우도(十友圖)>를 그리게 하였다. 서직수의 십우(十友)는 대부분 고동서화에 속하는 것으로, 이는 18세기 중후반의 도시문화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직수는 <십우헌기>에서 자신이 꼽은 열 가지의 소유물이 어떠한 것 인지를 제시한 뒤에, 자신이 이들을 벗으로 택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유물에 대한 태도는 왕세정과 가장 유사하다. 구양수, 그리고 앞서서 언급했던 남유용의 경우 소유물에서 비롯되는 누(累)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한 반면, 서직수는 소유물에서 오는 누 자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또한 왕세정과 같이 물(物)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앞에서 부르면 뒤에서 답하여 가는 곳마다 서로 따른다[前呼後應, 面面相隨].”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곧 소유물을 일방적으로 감상하는 존재가 아닌 상호 교유하는 존재인 우(友)로 규정하였으므로, 소유물에서 오는 누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서직수는 <십우도>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십우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에서 서직수의 열 개의 소유물 중 일부는 사람으로, 일부는 사물로 나타나 있다. <십우도> 안에서 서직수는 의인화된 소유물과 함께 둘러앉아서 고동서화를 감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

서직수의 <십우헌기>는 수집한 고동서화를 보관하고 감상하는 서재를 만들고 이에 대한 기(記)를 지었다는 점에서 당시 도시문화의 전형성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동서화를 우(友)로 정의하였으며, <십우도>라는 그림을 통해 자신과 물(物)의 관계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고동서화를 단지 애호물이나 소장물이 아닌,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존하는 서직수의 문집은 2종으로, 하나는 『십우헌집초(十友軒集抄)』(규장각 소장)이며 다른 하나는

『축천당고(蠶川堂稿)』(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인데, 『축천당고』는 『십우헌집초』를 보완한 문집으로 보인다.⁹⁾ <대은암기(大隱巖記)>는 『십우헌집초』에만 실려 있는 글로, 이 글에서 서직수는 대은암 인근에 지은 집에서 자신과 함께 지낼 십우(十友)를 언급한 바가 있는데,¹⁰⁾ 여기에서의 열 벗 [十友]은 <십우헌기>의 ‘십우(十友)’와 일치한다. 이를 통해 서직수가 십우와 함께 하는 공간을 바꾸었지만,¹¹⁾ 집의 이름을 ‘십우헌(十友軒)’이라고 지음으로써 공간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직수에게 있어 십우(十友)는 소장하고 있는 고동서화가 아니라 현재 자아의 모습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이러한 점은 서직수가 자호를 ‘십우헌(十友軒)’이라고 하고, 이를 문집 이름에도 사용한 것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서직수는 십우(十友)를 통해 자신이 속세와 거리를 두고 좋아하는 물건을 감상하며 살아가는 은거의 삶을 지향하고 있음을 나타냈는데, 이는 취향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인 조석규는 정성산 아래에 집을 지어 성리(聲利)를 사양하고 번다하고

9) 『축천당고(蠶川堂稿)』의 수록 작품과 그 순서는 『십우헌집초(十友軒集抄)』와 대체로 일치하며, 『축천당고』의 뒷부분에는 『십우헌집초』에는 없는 시문이 수록되어 있다. 『축천당고』에는 『십우헌집초』에서 수정했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며, 작품 일부의 제목과 시어(詩語)가 『십우헌집초』와 다르게 수록되어 있다. 또한 『십우헌집초』에 있는 몇몇 작품은 『축천당고』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를 통해 『축천당고』는 서직수가 『십우헌집초』를 수정, 보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0) 서직수, <대은암기(大隱巖記)>, 『십우헌집초(十友軒集抄)』, “論心有十友, 卽澈溪書·水鏡篇·董法筆·正宗劔·草堂詩·石田畫·平羽調·綠蟻酒·花鏡集·錦身訣, 坐臥相隨, 何關隔隣之有無?”

11) 서직수는 <십우헌기>에서 자신이 납납산 정천당에 산다고 하였으며, <납납산팔경(納納山八景)> 시를 지은 바 있다. 이 시에서 서직수는 납납산 주변의 경치로 화악(華嶽)과 덕현(德峴) 등을 들고 있는데, 이는 모두 가평에 속한 곳이다. 이를 통해 서직수의 십우헌은 가평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화려한 것을 끊어, 그 다리가 동화의 뿌연 먼지를 밟지 않은 것이 몇 십 년이 되었다. 오직 날마다 식물을 심는 것을 일로 삼아 꽃과 나무가 범승지의 책과 이시진의 논(論)에 실려 있는 것을 매일 울타리 사이에서 보지 않는 적이 없다. 영평 김씨의 금수정은 청성과 30리가 떨어져 있는데, 계곡과 산의 경치가 국내에서 매우 뛰어나다. 일찍이 동자를 데리고 손에는 삼태기와 삽을 들고 정자의 네 모퉁이를 둘러서 복숭아나무 천 그루를 심은 후에 돌아 왔는데, 그가 복숭아를 좋아한 것이지 공리(功利)를 계획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살고 있는 집에는 소나무, 매화, 오동나무, 대나무, 파초, 난초, 연꽃, 국화를 줄지어 심어놓았는데, 무릇 손수 심은 자와 더불어 아홉 친구가 되니, 이는 구양수가 스스로 육일이라 호를 지은 것과 같다. 내가 내 생각으로 그것을 헤아려보건대, 대개 들으니 사람을 친구로 삼는다는 것은 그 덕을 벗하는 것이므로, 꽃과 나무를 친구 삼는 것에 취하는 바가 없겠는가. 소나무는 곧게 자라고 뒤늦게 시드는 것을 벗으로 하고, 매화는 그 풍도가 높고 차가운 것을 벗으로 하고, 오동나무는 운(韻)이 있는 것을, 대나무는 마음이 빈 것을, 파초는 꽃이 없으나 열매가 있는 것을 벗으로 삼는다. 난초는 불에 타도 더욱 향기로운 것을, 연은 진흙에 있어도 더러워지지 않는 것을, 국화는 추울 때 피어나는 절조를 벗한다. 이와 같은 것이 조산인(趙山人)의 평생이 됨을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무릇 지금 친구를 고르지 않고 아무나 친구로 삼는 자는 꽃처럼 아름다운 모습과 마음에 가시를 품고 있는데도 머리를 맞대고 어깨를 나란히 하여 기미(氣味)를 분별하지 않고 취향이 이미 같아져 자신이 욕을 당하는 데에 빠져서도 깨달을 줄 모른다. 우리 아홉 벗으로 비교해 보면 또한 그 친구 된 바를 알 수 있을 것이다.¹²⁾

12) 이학규, <구우헌기(九友軒記)>, 『낙하생집(洛下生集)』 책12, “山人趙錫圭, 家青城山下, 謝聲利·絕芬華, 脚不踏東華輓紅幾十餘季. 惟日以種藝爲事, 凡卉木之載勝之之書·時珍之論者, 無不日遇之於籬落間也. 永平金氏之金水亭, 距青城三十里, 谿山之勝, 冠絕國內. 嘗挈僮指具畚缶, 環亭四隅, 種桃以千數而後還. 其好之而不計功利可知已. 于所居, 列植松梅梧竹蕉蘭蓮菊, 與夫手植者爲九友, 是猶歐陽自命六一之義也. 竊以意逆之曰: 蓋聞友人者, 友其德也, 而友卉木者顧無所

위는 조석규(趙錫圭)의 구우헌(九友軒)을 소재로 이학규가 지은 <구우헌기(九友軒記)>이다. 성해응 또한 조석규의 구우헌을 대상으로 동명의 기를 지었다.¹³⁾ 조석규는 여덟 벗[八友]과 자신을 합하여 집을 구우헌(九友軒)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여덟 벗[八友]은 소나무, 매화, 오동나무, 대나무, 파초, 난초, 연꽃, 국화이다.

이학규는 서두에서 조석규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밝힌 다음에, 그가 선택한 여덟 벗[八友]을 통해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학규가 서두에서 제시한 조석규에 대한 정보는 3가지로, 첫 번째는 숙제와 거리를 두고 살았다는 점이다. 이는 곧 조석규가 환로(宦路)에 뜻을 두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평생을 보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조석규가 기르는 식물에 대해 “범승지의 책과 이 시진의 논(論)에 실려 있는 것을 매일 울타리 사이에서 보지 않는 적이 없다.”라고 서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각종 식물을 수집하고 기르는 것이 조석규의 취미였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조석규가 금수정 근처에 복숭아나무 천 그루를 심은 일화로, 이학규는 이에 대해 공리(功利)를 도모해서 한 일이 아니라 단지 복숭아를 좋아해서 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성해응의 <구우헌기>에서도 조석규에 대해 비슷하게 서술하고 있으며,¹⁴⁾ 복숭아나무와 관련된 일화에 대해서는 나무꾼이 벌목하는 것을 줄이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¹⁵⁾ 또한 성해응은 조석규가 앞으로 용

取乎! 松友其挺特後彫, 梅友其標格高寒, 梧友其有韻, 竹友其虛心, 友蕉之不華而實, 友蘭之遭焚彌馨, 友蓮之不汙, 友菊之晚節. 若是者, 不問可知爲趙山人平生也. 凡今之不擇友而友者, 花顏棘心, 聚首駢肩, 氣味未辨, 趣向已同, 至身陷墮辱而不知悟. 其視吾九友, 亦可以知所友矣.”

13) 성해응, <구우헌기(九友軒記)>, 『研經齋全集』 권14.

14) 성해응, 위의 글, “水北山人趙而玄, 自少好種植花木. 至于老, 堂廡園圃之間, 所列者不啻幾十種, 而獨取蘭菊梅竹桐松蓮蕉之屬凡八者, 自以一己處其間, 謂之九友, 蓋取歐陽公以六一爲號之義, 而玄其可謂希賢者乎”.

화산에 복숭아나무 수천 그루를 심을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삼폭(三瀑)과 복숭아나무가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밝히고 있다.¹⁶⁾ 이를 통해 조석규는 세속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 즉, 화훼에 몰두하며 살아온 인물이며, 자신의 취(趣)를 집에서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즐기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학규가 위의 글에서 조석규의 8가지 벗[友]인 소나무, 매화, 오동나무, 대나무, 파초, 난초, 연꽃, 국화의 속성을 밝힌 것은 조석규가 단순히 화훼에 벽(癖)이 있어 모든 식물을 수집하고 기르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성해응의 경우 앞서서 언급했던 복숭아나무와 관련된 일화를 통해 조석규가 화훼에 지나치게 빠져서 상지(喪志)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¹⁷⁾ 이는 조석규가 화훼를 좋아했지만 완물상지(玩物喪志)할 정도는 아니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조석규가 선택한 여덟 벗[八友]이 모두 화훼에 속하며, 또한 이학규와 성해응의 기(記)에는 화훼를 가꾸는 것에 몰두하며 평생을 살아온 그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또한 조석규는 <육일거사전>에 나오는 물(物)이 아닌 자신의 취향을 반영하여 여덟 가지 물(物)을 택하고, 이들 물(物)과 자신을 합하여 ‘구우(九友)’라고 집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는 곧 화훼에 몰두하여 살고 있는 현재 자신의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이 물(物)을 우(友)로 치환하여 집의 이름을 지은 경우, 좋아하

15) 성해응, 위의 글, “而玄且言種桃幾千株於金水之岸, 頗爲樵採所損”.

16) 성해응, 위의 글, “又欲種桃千株於龍華山中, 使三瀑照映桃花, 其心誠欲不私於物也”.

17) 성해응, 위의 글, “而玄且言種桃幾千株於金水之岸, 頗爲樵採所損, 又欲種桃千株於龍華山中, 使三瀑照映桃花, 其心誠欲不私於物也. 歐陽公跋平泉草木記, 深誚李贊皇云壤一草一木 非吾子孫, 爲甚愚, 蓋私則愚, 公則哲. 今而玄之志既如此, 又何足以疲弊精神於草木之微爲病哉”.

는 소유물을 통해 자아 또는 개인이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는 자아 또는 개인의 취향을 통해 정체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기(記)에는 벽(癖)과 치(痴)로 표상되는 당시 도시문화가 드러나 있는데, 서직수의 경우 고동서화에 침잠해 있는 모습이, 조석규의 경우 화회에 벽이 있어 이를 수집하고 기르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이를 통해 당시 도시문화 속에서 물(物)을 향유한 방식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완물상지를 지양하며 물(物)과 거리를 두어 물에서 비롯되는 누(累)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물에 대한 애호를 드러내는 것을 통해 자신의 취향과 함께 그 정체성을 나타낸 것이다.

4. 결론 : 조선 후기 도시문화와 물(物)을 통한 개인 표상

구양수의 <육일거사전>을 변용한 자아, 혹은 개인의 집에 대한 기(記)는 개인과 그 소유물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을 통해 개인의 특성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당시의 도시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고에서 제시했던 작품 중 비교적 앞 시기에 쓰였던 남유용과 유한준의 작품에 나타난 자아 또는 개인은 집의 이름을 통해 소박한 사(士)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반면에 이들 작품보다 뒤에 쓰인 서직수와 조석규의 집에 대한 기(記)에서는 집의 이름을 통해 자아와 개인의 취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物)을 대하는 관점에 따라 <육일거사전>을 변용하여 자아와 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처럼 애호물을 통해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당시 회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윤동섭 초상(尹東暹肖像)>(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과 <이하응 초상(외룡관학창의본)>(서울역사박물관 소장)의 경우, 초상화의 인물이 애호하는 물건을 초상화에 함께 그렸는데, 운동섬의 경우 서책, 향로, 문방기물을 서안 위에 두고 앉아 있는 모습을 통해서 서화수집가로서의 모습과 한거(閑居)를 즐기는 모습을 나타냈다.¹⁸⁾ 흥선대원군 이하응은 탁자와 협탁을 앞에 두고 앉아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 탁자와 협탁, 그리고 그 주변에 놓인 사물을 통해 한거를 즐기는 모습과 정치적 권위를 동시에 나타내고자 하였다.¹⁹⁾ 운동섬과 흥선대원군의 초상화는 인물의 모습이나, 인물이 입고 있는 의복, 그리고 인물의 표정 등을 통해 그 인물의 특성을 나타내는 초상화와는 다르다. 어떠한 인물을 그가 선택한 물건과 함께 그림으로써, 그 인물이 현재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가 나타내고자 하는 자신의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화가의 자화상에서도 나타난다. 김홍도는 자화상인 <사인초상>(평양 조선미술박물관 소장)과 <포의풍류도>(개인 소장)에서 자신이 애호하는 사물을 나타낸 바 있다.²⁰⁾ 정선 또한 <독서여가>(간송미

18) 장진아 외 편, 이수미 외 저, 『미술 속 도시 도시 속 미술』, 국립중앙박물관, 2016, 196~198쪽 참조.

19) 이경화, 「그림자 국왕의 초상: 외룡관학창의본 이하응 초상」, 『미술사와 시각문화』 14, 2014, 30~61쪽 참조.

20) 엄소연은 『김홍도 자화상의 자기서사 방식』(『예술과 미디어』 13, 2014, 65~79쪽)에서 김홍도가 <사인초상>을 그렸을 당시에는 관직에 있었고 <포의풍류도>를 그렸을 당시에는 관직에서 물러나 빈한하게 살 때였으며, 처한 상황에 따라 그림 속 자신의 모습을 다르게 그렸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사인초상>과 <포의풍류도>에 고동서화가 그려져 있어 관직의 진퇴(進退) 여부와 관계없이 고동서화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사인초상>과 <포의풍류도>에 나타난 고동서화의 종류가 일부 다르며, <사인초상>에서의 고동서화는 탁자에 가지런히 놓인 형태로, <포의풍류도>에서의 고동서화는 김홍도 주변에 늘어놓아져 있는 형태로 나타나 있다. 이를 통해 관직의 진퇴 여부에 따라 고동서화의 종류와 배치 방법을 달리 했음을 알 수 있다.

술관 소장)에서 책과 화초 등이 있는 집에 자신이 존재하는 것을 그림으로써, 자신이 추구하는 사(士)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들 작품은 물(物)을 통해 자아를 나타냈다는 점은 같으나, 물(物)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자아의 모습은 다르다. 정선의 <독서여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물(物)인 책, 화분, 그림 등을 초가집 안팎으로 배치하고, 정선 자신은 그 집의 툇마루에 비스듬히 앉아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반면 김홍도의 <사인초상>과 <포의풍류도>에 나타난 기물은 청동기, 향궐, 서책 등의 고동서화로, 이러한 기물은 김홍도 주변에 놓여 있는 형태로 나타나 있다. 정선이 최소의 물건을 통해 소박한 사(士)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낸 반면, 김홍도는 자신의 취향이 드러나는 물(物)을 통해 고동서화를 향유하는 사(士)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냈음을 알 수 있다.

<육일거사전>을 변용한 기(記) 또한 정선과 김홍도의 자화상과 마찬가지로 물(物)을 통해서 자아 또는 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때 집이나 서재는 표면적으로는 소유물을 향유하는 공간으로 보이지만 이는 곧 자아나 개인의 내면을 의미하며, 이 공간을 구성하는 물(物)은 자아 또는 개인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는 당시의 취와 벽, 그리고 여기에서 비롯되는 수집을 기록한 기(記)와는 차별점을 보인다. 고동서화를 보관한 곳에 대한 기는 집에 무엇이 보관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고, 공간을 구성하는 물품의 가치를 드러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그 공간이 어떠한 곳임을 나타내는 것이지, 이를 통해서 개인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육일거사전>을 변용한 기는 물(物)을 통해 개인을 규정하는 것으로, 도시문화 속에서의 자아 또는 개인의 정체성을 공간에 대한 기(記)를 통해 나타낸 것이다. 이는 조선 후기에 자아 또는 개인을 서술하는 방식의 한 단면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구양수, 『文忠集』(四庫全書本).
- 남유용, 『雷淵集』, 한국문집총간217.
- 서직수, 『十友軒集抄』, 규장각 소장.
- , 『蠡川堂稿』,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성해응, 『研經齋全集』, 한국문집총간273.
- 소식, 『東坡全集』(四庫全書本).
- 왕세정, 『弇州四部稿』(四庫全書本).
- 유한준, 『自著』, 한국문집총간249.
- 이학규, 『洛下生集』, 한국문집총간290.
- 안대회, 『조선 후기 소품문의 실체』, 태학사, 2003, 1~406쪽.
- 장진아 외 편, 이수미 외 저, 『미술 속 도시 도시 속 미술』, 국립중앙박물관, 2016, 1~397쪽.
- 장파 저, 백승도 역, 『장파 교수의 중국미술사』, 푸른숲, 2012, 1~927쪽.
- 홍경모 저, 이종묵 역, 『사의당지, 우리 집을 말한다』, 휴머니스트, 2009, 1~331쪽.
- 배현진, 「명말 도시문화 변화와 서화수장 취미 전개 양상」, 『동양예술』 28, 2015, 127~152쪽.
- 엄소연, 「김홍도 자화사의 자기서사 방식」, 『예술과 미디어』 13, 2014, 65~79쪽.
- 이경화, 「그림자 국왕의 초상: 와룡관학창의본 이하응 초상」, 『미술사와 시각문화』 14, 2014, 30~61쪽.

ABSTRACT

The Investigation into the Ouyang Xiu's Acceptance Pattern
of *The Biography of the Six to One Layman*

—Based on Gi(記) of Dang(堂), Heon(軒) and Jae(齋) in the Late Joseon Period

Kang, Soo-jin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a pattern of the self or an individual in the late Joseon Dynasty, based on Gi of a house created by transforming *The Biography of the Six to One Layman* by Ouyang Xiu. *The Biography of the Six to One Layman* is the biography that Ouyang Xiu wrote when he planned his life after his retirement from office. When the Gi of a house was created by transforming *The Biography of the Six to One Layman*, the space of a house was given to the biography and the identity of the self or an individual was defined through things in the space. This Gi appeared after the 18th century. This study analyzed the Gi, created by transforming *The Biography of the Six to One Layman*, to find out a pattern of Gi of space. By doing so, it investigated the reason why this phenomenon appeared in a specific period.

The Gi created by transforming Ouyang Xiu's *The Biography of the Six to One Layman* showed its identity of an individual through a space, where the individual and his possessions existed together. The reason why this phenomenon appeared in the late Joseon Dynasty was closely related with the urban culture of that time. At that time literary men in the urban culture explained or described their antiquarian paintings and calligraphic works they had through their writings and paintings, most of which were focused on exposing their taste. However, the Gi transforming *The Biography of the Six to One Layman*, going further, tried to show the identity of the self or an individual through things loved by the writer. That is to say, He set a space where the possessions were put like a house or a study, and exposed the identity of an individual through Gi of

the space. The Gi transforming *The Biography of the Six to One Layman* was to define an individual through things, in which a way of expressing an individual along with the urban culture was shown through a genre of Gi. It is significant because it shows a pattern of the way that describes an individual in the late Joseon Dynasty.

Key Words Ouyang Xiu(歐陽脩), *The Biography of the Six to One Layman* (六一居士傳), late Joseon Dynasty, urban culture, epic of self, individuality, the self, an individual

논문투고일 : 2017.07.15
심사완료일 : 2017.08.08
게재확정일 : 2017.08.21